

‘삼성광주사업장’ 프리미엄 가전 업그레이드

라인 개선...해외 판매 전기 건조기 국내용 본격 출시

김치냉장고·냉장고·에어컨 사계절 내내 효자 상품

광주에서 생산되는 김치냉장고가 계절과 상관없이 판매고를 올리면서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건조기까지 생산, 프리미엄 가전 생산기지로서 역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다.

22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따르면 지펠아삭 김치냉장고 스탠드형의 경우 2013년 12%, 2014년 7%, 2015년 14%, 2016년 5% 등 4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었다.

김치냉장고 판매 비수기라고 하는 1~3분기만 놓고 봐도 스탠드형 판매량은 2013년 6.3%, 2014년 5.1%, 2015년 16.5%, 2016년 31.1% 늘어나는 등 4년 내리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김치냉장고가 김장철에만 필요한 가전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김치냉장고의 미세정온 기술이 일반 냉장고보다 우수하고 식재료에 따라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펠아삭 김치냉장고는 ‘글로벌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2006~2016년)를 차지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지펠아삭 김치냉장고 스탠드형은 뛰어난 성능은 물론 외관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설치 공간 제약이 덜해 고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삼성 지펠아삭 M9000은 ‘메탈그라운드’로 완성한 초정온 기술로 김치를 더욱 맛있게 숙성시키고 오랫동안 아삭하게 보관해 준다. 공간별로 온도 설정을 할 수 있

고, 중간 전문숙성&저장 기능을 더해 육류, 생선, 채소, 과일, 와인, 곡류 등 다양한 식재료를 최적의 온도로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유용하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 건조기를 본격 출시하며 생산 품목을 늘렸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미세먼지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건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던 건조기를 국내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다.

광주사업장에서 새롭게 생산하는 건조기는 전기 건조기로 저온건조와 제습 과정을 반복하는 ‘히트펌프(Heat-Pump)’ 기술을 적용해 고온열풍으로 건조하는 기존 방식 대비 옷감 손상을 최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방식은 제습센서가 빨래의 수분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제습기처럼 옷감 속 습기를 제거해 주는 방식으로, 5kg 세탁물 기준 표준 코스 1회 사용시 전기료가

약 180원정도 발생해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

설치 공간에 따라 도어가 열리는 방향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좌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양방향 도어’를 적용해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건조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물통에 모을 수 있어 따로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전원만 있으면 어느 장소에든지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전용 거치대를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드럼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어 공간이 좁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광주는 프리미엄 가전 생산기지로서 프리미엄 제품 제작에 최적화된 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며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68.30 (-10.08)

↓ 금리 (국고채 3년) 1.66% (-0.01)

↓ 코스닥 607.57 (-2.16)

↑ 환율 (USD) 1123.30원 (+3.00)

한전 조환익 사장 연임 확정...최장수 사장

조환익(67) 한국전력 사장의 연임이 지난 21일 확정됐다.

한전은 이날 나주시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사장의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연임 임기는 1년으로 조 사장은 내년 2월까지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조 사장은 지난 2012년 12월 한전 사장에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2월 한차례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5년 2개월간 한전을 이끌며 ‘최장수 사장’의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앞서 최장수였던 이종훈 전 사장은 1993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5년간



재직했다. 한전 사장이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조 사장의 연임배경에는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장사 이래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자원부 차관,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코트라(KOTRA) 사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

광주·전남 경제성장세 둔화

금융위기 후 제조·건설업 타격

2011년 이후 광주·전남 제조업과 건설업 성장률이 이전보다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한 금융위기 전후 지역경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제조업 성장률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9.8%였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0%에 불과했다.

전남 제조업 성장률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7.3%였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1.8%에 그쳤다.

광주 건설업 성장률은 2003~2007년 7.5%였으나 2011~2015년 3.8%로 하락했고, 전남 건설업 성장률도 2003~2007년 4.0%였으나 2011~2015년 -2.1%로 대폭 하락했다. /오광록기자 kroh@

금호타이어 컨소시엄 허용 결정 무기한 연기

‘통과 쉽지 않다’ 기류...이르면 다음주 초 결론 관측도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한차례 연기 끝에 22일 금호타이어 주주총회에 서면 부의했다.

당초 산업은행은 지난 20일 서면 부의하기로 했으나 추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부의 일정을 미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했고 금호 쪽의 얘기도 들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내부적으로 컨소시엄을 불허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서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우선매수청구권은 박삼구 회장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것이라며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호타이어 입찰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알렸고 채권단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중국의 더블스타도 그렇게 알고 입찰에 참여했다.

산업은행이 뒤늦게 입장을 바꾸면 더블스타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결국 산업은행은 여전히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으나 절차적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이날 채권단에 공식

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 측은 안전 부의를 하지 않고 SPA를 체결한 것은 문제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면 부의 일정을 20일에서 뒤로 미룬 것은 정지권의 반대 여론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계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컨소시엄 허용은 원래부터 쉽지 않았다”며 “더블스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은 부의 안건에 대한 회신 마감은 24일로 지정했으나 마감을 넘겨 의견을 제출하는 곳도 있어 다음 주 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세관 ‘FTA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22일 정부광주지방법동청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대전 포함 이 지역 전기전자업체의 원산지정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주) 협력업체 등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라 함) 원산지검증 대비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FTA 제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

는 기업이 많아 기존에 받아왔던 FTA 특혜가 박탈되는 등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없으며 협력업체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실정이다.

광주본부세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준비사항 및 위기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맛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